

일본 의료분야의 차세대 이동서비스(MaaS) 대응 현황

- 일본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운전자 부족, 대중교통 서비스 적자 등 ‘이동’ (Mobility)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급부상
- 도요타자동차와 소프트뱅크는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MaaS(Mobility as a Service) 개발을 위해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「모네(MONET) 플랫폼」을 구축
- 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필립스 등 비자동차 기업이 헬스케어 MasS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대응

□ MaaS(Mobility as a Service)는 차세대 이동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철도, 버스, 택시 등 여러 이동의 운영 정보를 종합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말함

- 유럽의 민관연대조직 MaaS Alliance는 MaaS를 「다양한 종류의 교통 서비스를 수요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는 것」으로 정의
- MaaS 선진국인 핀란드에서는 대중교통 기관과 연계하여 경로검색·예약·결제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「Whim」이 서비스를 개시했고, 렌터카와 공유 사이클 등이 추가 연계되고, 이용료 정액제 등 획기적인 시도가 진행 중
- 일본에서도 이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여러 서비스 분야 기업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활발하게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음
- 동 자료는 「일본판 MaaS」 추진을 목적으로 한 일본 기업들의 공동대응 현황과 특히 의료분야에서의 MaaS 추진 현황을 정리

□ (일본판 MaaS 추진을 위한 기업간 연계) 도요타자동차와 소프트뱅크는 금년 2월 공동 출자 방식으로 모네(MONET Technologies) 회사를 설립

- 일본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운전자 부족, 대중교통 서비스 적자 등 이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급부상
- 이에 도요타자동차와 소프트뱅크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에 합의(2018년 10월), 모빌리티에 있어 사회과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MaaS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모네를 설립(2019년 2월)

- 모네는 「자율주행 사회를 대비한 MaaS 사업 추진」을 목적으로 「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」라는 기업이념 하에 설립

* “자율운전 기술은 사람을 ‘운전’에서 해방시키고, 자동차를 이동 수단에서 다양한 것이 가능한 ‘장소’로 변화시킨다” (MONET Technologies 사업추진본부장)

- 모네는 여러 기업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람의 이동 및 차량 데이터 등을 집약한 DB 및 차량·배차 API, 서비스API를 제공하는 「MONET 플랫폼」을 구축

- 금년 3월 소매, 물류, 의료, 금융, 음식, 교육 등 다수의 이업종 서비스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설립했는데, 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증실험을 추진 중

- 동 컨소시엄은 9월 현재 약 400개사가 참여. MaaS 추진에 있어 현행 법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대정부 건의 등도 수행

□ (의료분야 MaaS : 지자체 사례) 금년 가을부터 나가노현 이나시(長野県伊那市)와 공동으로 「의료 MaaS : 이동하는 진료 자동차」 실증실험을 추진할 계획

- 이나시는 나가노현에서 3번째로 넓은 지역이면서 의료진 수는 적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. 지역 의료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MaaS 추진을 결정

- 「간호사가 차량에 탑승하여 환자를 방문 → 화상통화로 의사가 원격지에서 진료 →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검사 및 필요한 처방을 지시」하는 시스템을 실증 테스트

- 이동 진료차량이 「MONET 플랫폼」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경로로 환자의 자택 등 목적지를 방문

< MaaS를 통해 의사의 원격진료를 실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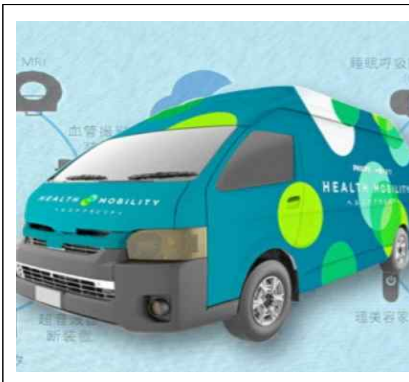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MONET Technologies 보도자료. 2019.5.14.

□ (헬스케어 MaaS : 기업 사례) 필립스재팬은 기존의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의 경험을 모빌리티와 연계함으로써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MaaS 사업 추진을 발표(19년 4월)

- 필립스는 지금까지 주로 의료기관이나 자택(재택의료)에 IT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했음
- 이제는 자율주행 사회를 대비하여 [건강한 생활 → 진단 → 치료 → 홈케어] 까지 일련의 헬스케어 프로세스에서 획일적·고정적으로 제공해왔던 서비스를 환자 맞춤형·동적인 서비스로 혁신할 계획
- 필립스는 모네와 협력하여 헬스케어 설비를 탑재한 차량 개발을 검토 중. 예를 들면 도요타 하이엑스 후부공간의 사이즈 정도에 원격진단이 가능한 모니터와 혈압·체온·체중·혈당 등 바이탈 데이터 측정기, 자동체외식제세동기(AED) 등을 탑재
- 차량을 간이 클리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좌석을 진료침대로 변형 가능. 개인 정보의 안전인식과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구강 케어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검토

< 차량 외부 이미지 >



< 차량 내부 >



< 간이 클리닉 이미지 >



자료: 닛케이트랜드 2019.5.30.

□ 한국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이업종 기업간 연계하여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

- 우선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과제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→ 다양한 기업 참여를 독려 → 상호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
- *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계획(전자신문, 2019/10/15)

<참고자료>

미즈호정보충언, [特集] 日本版MaaS 実現への道, 2019.9월호 등